

6·4 지방선거 확대경

새정치, 광주시장·전남지사 컷오프 '변수'

# 票 유동성 커... 경선판세 요동

압축후보, 2명이나 3명이나 촉각  
논란 증폭 우려 도입 안 할 수도

조만간 출범할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이 각기 4명으로 좁혀지면서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예비 경선) 실시 여부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경선 판도에서 어느 한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가 실시된다면 전체적인 판세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컷-오프 시 탈락 후보의 지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명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어느 한 후보의 압도적 우세보다는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후보들끼리 정체성과 지지층 등에서 서로 맞물리는 구도여서 컷-오프가 실시된다면 상당한 판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지사 경선도 컷-오프가 실시된다면 전체적인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동부권 1명(주승용 의원), 서부권 3명(이낙연 의원, 김영록 의원, 이석형 전 군수)의 구도로 경쟁 구도가 짜여져 있어서다.

컷-오프에서 서부권의 후보가 탈락할 경우 오히려 서부권 표심의 결집력이 커지면서 동부권 주자인 주승용 후보에 약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컷-오프 결과에 따른, 서부권 주자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컷-오프 규모도 관심사다. 일단, 현재의 구도에서 컷-오프가 실시된다면 4명에서 3

명으로 후보를 압축할 가능성이 크다. 4명에서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한다면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붕괴되면서 후보 간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아예 컷-오프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5명 이상의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 3명으로 줄이는 컷-오프가 실시될 수 있지만 4명의 후보군에서 1명을 탈락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컷-오프 실시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들이 나름대로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컷-오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에서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참석자들을 향해 꽃다발을 들고 맞잡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 후보 이정재, 전남지사 후보 배종덕·이중효씨

興 시·도지사 예비후보 윤곽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광주시장, 전남지사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장의 경우 이정재 광주시장 위원장이 유일하게 신청했고, 전남지사의 경우 배종덕 전 목포시 지구당위원장과 이중효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등 2명이 공모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 위원장을 전락 공천할 것으

로 알려져 사실상 새누리당 광주시장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는 2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지역별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재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부름을 받고 광주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해 지난 15일 중앙당에 광주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했다"며 "광주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책임을 느끼고, 시민에게 다가서고 발로 뛰는 새누리당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영입하겠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견을 경청해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오후 5시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역단체장의 경우 세종시를 포함한 16개 광역단체에 58명이 신청해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에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신청자는 각 시·도당을 통해 공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이낙연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공개·포상"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6일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비율을 도 본청 및 각 시·군별로 공개하고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업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말했다.

또 "전체 근로자의 2~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형일 "고교배정, 근거리·학교선택권 존중"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광주 지역 고교배정방식을 근거리 원칙과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올해 고교배정 결과 우수한 학생들의 배정이 학교에 따라 최고 5배나 차이는 등 학교간 학력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아 현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근거리와 학교선택권이러는 학교배정의 2대 원칙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배용태 "정책, 시민공모로 제안 받겠다"

목포시장에 출마한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16일 "시민들이 직접 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시민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배 전 부지사는 "깨끗한 정책선거 문화를 위해 선거운동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과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운동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을 받아 공약을 만들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염동익, 광주시의원 출마... "도심 균형발전"

광주시의원(서구 제1선거구) 예비후보인 염동익의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자원위원장이 최근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염 예비후보는 서구 발전을 위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 ▲양동시장의 관광브랜드화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등 건립 ▲도서관 확충과 놀이공간 확보 ▲지하철 역세권별 문화·상업 특화 거점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염 예비후보는 서구 기초의원을 지냈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명예홍보대사, 순화규 전 민주당 대표 특보,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주승용 "전남 공공시설 관리공단 설립"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전남이 보유한 공공시설 관리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공시설 관리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우선한 관리운영으로 전남도민의 복지 증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왕복, '학교폭력예방시민위원회' 제안

김왕복(59)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시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광주지부를 방문, "새 학기를 맞아 교내뿐 아니라 학교 인근 공원·주책가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경찰청·학부모단체·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순찰·지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출마 선거사무실 개소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목포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목포의 경제발전과 '소통하는 시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후보는 "목포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목포로 기업과 자본이 모이게 하겠다"면서 "목포의 내재된 강점을 살려 목포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체를 유치해 새로운 목포발전의 동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목포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진,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승진 '광산 희망과 대안' 상임대표가 광주시의원(광산구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생활정치, 참여정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박정욱·오광록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NAVER 검색엔진에 대비플래워를 추천해요

**단비플래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광주원광신협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홍암지점 | 653-4474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